

같이 보기

: 근로자 건강백서

우리에게 포근함과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봄, 그러나 건설업 근로자에게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봄과 함께 해빙기로 들어서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월간 『산업보건』 4월호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건강보호 가이드를 전한다.

글 편집실

해빙기 건설현장 건강보호 가이드



아직은 일교차로 인한 추위가 만연한 4월, 그래도 한겨울의 추위와는 사뭇 다른 포근함이 느껴진다. 다소 풀린 날씨에 눈은 녹았고, 곳곳이 얼굴을 내민 개나리를 보고 있노라면 봄이 왔음이 실감 간다.

우리에게 포근함과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봄, 그러나 건설업 근로자에게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봄과 함께 해빙기로 들어서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빙기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2~4월을 전후로 형성된다. 해빙기가 되면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얼어있던 수분이 녹으며 지반이 약화되어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건설업 근로자는 해빙기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9년 건설현장 재해 현황을 보면, 사고부상자 22,588명 중 5,375명(23%)이, 사고사망자 404명 중 94명(23%)이 해빙기에 사고를 당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한 재해는 떨어짐(34.2%)과 넘어짐(17.2%)

이며, 두 재해는 전체(1월~12월)와 비교 시 해빙기에 다소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안타까운 점은 이 두 재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빙기에 추락이나 미끄럼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사전 점검(추락을 대비한 방호망 설치 여부 점검, 안전난간 설치 여부 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눈이 녹아 봄이 찾아오며 지반이 약해졌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마음도 한껏 풀어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풀어진 마음을 다잡고 안전보건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월간산업보건에서는 해빙기 건설업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해빙기 자율점검 가이드를 소개한다. ☺

월간 「산업보건」에서 소개하는

해빙기 건설현장 작업 가이드



추락 예방 점검 가이드

점검항목	점검사항
안전통로 확보여부	-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비계 상 추락방지	-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철골작업시 추락방지	- 승강로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 안전대 및 부착설비 이상유무 확인
지붕작업시 추락방지	- 폭 3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 상태 -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 유무
개구부 상의 추락방지	-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상태 - 임시로 안전난간 등 해체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추락예방 개인보호구 (안전대, 안전모)	- 개인보호구 적정 지급 여부 점검 - 지급받은 개인보호구의 적정 착용 여부 점검

해빙기 사전 계획 점검 가이드

점검항목	점검사항
사전 계획	- 비상연락망 구축여부(유관기관 및 응급조치 기관) -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유무 - 전력선, 전화케이블,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상태 -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협의 여부

현장 주변 시설 점검

점검항목	점검사항
주변 도로 및 배수시설 등	공사용 가설도로 상태의 적정성 -노면의 폭 및 요철부분 정비 여부 -노면의 결빙상태 제거 및 다짐 여부 도심지 지하철공사 주변도로 상태의 적정성 -복공판 표면상태의 이상 유무 -복공판 요철부분 정비 및 필요 장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유무 -원활한 교통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 부착 여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해빙기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확인바랍니다.